

+ 찬미 예수님

저스틴 신부님의 5월 23/24일 (토,일) 미사 강론  
한국어 번역입니다. 은총 가득한 시간 되십시오!

\*삶은 시험이고 일시적인 과제이다(Life is a Test & Temporary  
Assignment)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Rick Warren, *The Purpose Driven Life*, 41).

어떤 사람들은 삶을 여행, 혹은 롤러 코스트( 오르락 내리락), 혹은  
물음표(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G.K. Chesterton 이 말한 것을 기억 할 지도 모릅니다. “모험은 단지  
불편할 뿐이다”(http://thejustmeasure.ca/2018/07/22/interruptions-can-be-blessings/). 이에 따르면  
인생을 모험으로 본다면 많은 불편함이 이치에 맞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도움이 되긴하지만, 개인적으로 나한테 와닿지는 않습니다!

- 우리의 삶을 보는 방식은 오늘날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구체화합니다.
- 이 곳 밴쿠버에 사는 우리들 중 많은 이들에게 지난 주, 우리 지역이  
서서히 비즈니스를 재개하면서 사회적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 일부는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일부는 기쁨을 유발했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그가 한번도 만난적이 없는 현대 터키의 기독교 공동체인, 에페소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제 2 독서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 쉽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에페1:17).

- 그는 그들이 이미 세례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성령(Peter S. Williamson, *Ephesians in Catholic Commentary on Sacred Scripture*, 46)을 더 많이 쏟아내길 기도하고 있지만, 바오로 성인은 그들에게 그분께서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특별히 그들에게 이성을 통해 세상을 아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이 우리에게 진실을 드러내는 ‘계시’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Marius Victorinus in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114).

지혜와 계시를 통해 에페소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미래의 세가지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을 밝혀 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부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에페1:18-19).

- 1) ‘희망’은 하느님과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2) “신약성서의 상속은 ‘천국을 가리키며, 구약성서의 약속된 땅의 모든 자질을 가리킵니다. “생명, 평화, 안전, 축복의 장소”(Williamson, 43); 3) 바오로 성인은 에페소 사람들이 ‘하느님의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하신 능력’을 알게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세계관과 도덕성을 가진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들을 박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페소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을 알아야합니다(Ibid., 51).

만약, 바오로 성인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인생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될까요? 릭 워렌 목사 덕분에 여기에 두가지 도움이 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1) 삶은 시험이다; 2) 삶은 일시적 과제다.

첫째, 인생은 시험이다. “시험, 유혹, 연단, 테스트와 같은 단어들이 성경을 통틀어 200번 이상 등장한다. 예를 들어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시험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이기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 했고...우리는 항상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사람, 문제, 성공, 갈등, 불의, 병 그리고 심지어 날씨에까지 반응하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거나, 쓰레기를 줍거나, 상점 직원이나 식당 직원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와 같이 아주 사소한 행동도 지켜보고 계신다” (Warren, 42-43).

- 이것은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극도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보고 싶어하시고, 우리의 성격은 고통을 통해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시험받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단순히 삶을 힘들게 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시험은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도로에서 나쁜 운전자들에게 진정으로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하늘나라의 본성이 죄악과 죄악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들만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기도 하십니다.(죄악에 대한 애착은 우리가 그것을 갈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Cf.

CCC 1472; See also: <https://www.catholic.com/qa/what-is-attachment-to-sin;>

<https://www.catholicculture.org/commentary/sin-vs-attachment-to-sin-critical-distinction/>))

- 예를 들어, 앤드류 부제와 내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망칠 것입니다. 모두가 하느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을테고, 나는 몸을 숙여 “ 부제님.. 노래를 너무 빨리 하는군요.”라고 말할 것이고 손으로 나를 씻 하고 조용하라고 할 것입니다! 천국은 끝날 것이고, 우리는 둘다 조바심을 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완벽의 상태에 반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한 시험이고(하느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나쁜 것은 무엇이든지,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Cf. CCC 1849-50)), 더욱 긍정적으로, 이러한 테스트는 우리가 사랑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http://thejustmeasure.ca/2019/02/24/how-to-forgive-our-enemies/>)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삶이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작은 사건도 우리의 인격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매일이 중요한 날이고, 매 순간이 인격을 개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또는 하느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다. 어떤 시험은 아주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시험은 있는지도 알지 못할 만큼 작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시험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영원한 것이다”(Warren, 43).
- 부활절 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능력 =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쉽게 상처 받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심지어 그들에게 거부당하기 때문입니다(<http://thejustmeasure.ca/2020/04/12/capacity-to-suffer-capacity-to-love/>). 그래서 시험을 받고 상황이 우리를 한계에 치달게 할 때, 만약 우리가 사랑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을 위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에서의 더 많은 행복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완벽하게 행복해 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른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지금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둘째, 인생은 일시적 과제입니다. 오늘 바오로 성인은 우리가 영원한 조국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순례자, 외국인, 방문객, 손님,  
여행자’ 등의 어휘를 사용해서 세상에서의 짧은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Warren,

48. 이 현실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 1) 당신은 영원히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은 시험이고, 힘들고, 사랑  
속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지만, 영원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Fr. Robert Spitzer의 말을 들었을 때, 왜 하느님께서 고통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에서 이 점을 상기시켜 주었는데, 그것은 많은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PO47ZtkS8x8>)!
- 2) 사물이 원근법에 들어오는 일: 우리는 작은 일들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쓰고 때로는  
삶의 일부 문제에 불균형하게 반응합니다.
- 우리는 단 한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 몇몇은 때때로 실패를 너무 심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고 정신이 혼미해 지지만 결국 상처받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 몇몇은 양심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죄가 없는 곳에서 죄를 보고, 우리가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과잉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자신의 멍든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 한 기자가 종종 언론에서 기갑 추기경으로 오보되는, 독일어로 탱크 추기경을 의미하는, 교황 베네딕트 16세에게 “교황의 삶에서 유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농담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재미있는 면과 즐거운 차원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너무 비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내 사역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한 작가는 천사들이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자신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조금 날 수 있을 것이다”(<https://www.dw.com/en/pope-benedict-xvi-we-have-a-positive-idea-to-offer/a-2129951>).
  -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천사처럼 영적으로 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분의 존재 속에 있으며,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 3)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악마와 죄와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이고 (Cf. CCC 654, 2853), 우리는 우리가 충실하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입니다.

- 4) 너무 애착을 갖지 마십시오.” 이 진리를 파악하면 지구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이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위험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가치관과 우선순위, 생활방식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무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추근떨때, 하느님께서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부르십니다 [Cf. Jas 4:4; Jer 3:6-10; 31:32; Hos 3:1.. 만약 당신이 당신의 나라로 부터 적국의 대사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관습과 문화적 차이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가 편하게 느껴지고, 그 나라와 사랑에 빠지며, 모국보다 우선시하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충성심과 헌신의 대상이 바뀔 것이며.. 모국을 대표하기보다... 우리는 배신자가 될 것입니다”(Warren, 48-49). 바로로 성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면서,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임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온라인 채팅에 대한 매우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에서 어떤 진실이나 생각이 이번주에 가장 도움이 됩니까? 삶이 시험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라는 것, 아무것도 대수롭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어떤것입니까?



- 어떤 진실이나 생각이 도움이 된다면 알파에 사람들은

초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논의한 진실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제시하는 알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께 이번주에 그들을 초대할 수 있게 안내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12월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과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나는 내 리스트를 적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똑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초대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간단한 명상으로 끝맺겠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행복이 멈추지 않는 곳? 고통이 끝난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행복이 있을 것이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 천국을 인식하는 것은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오로 성인은 오늘 ‘당신의 마음의 눈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인식하려면, 우리의 깊은 내면의 무언가가 삶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내가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것은 내가 삶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겪는 모든 일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랑을 선택한다면 가치가 있고,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너무 좋습니다.

- 천국을 아는것은 왜 삶이 시험이고 일시적인 과제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강론 말씀도 은총으로 가득한 시간이길 기도드립니다.

COVID-19 시기에도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신 모든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제를 위한 기도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사제들이 하는 모든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